

공감 - 위안 - 응원

주인공이 되지 못한 우리의 이야기

스토브리그

STOVE LEAGUE

12월 13일(금) 첫 방송

새 금토드라마 <스토브리그>(극본: 이신화, 연출: 정동운)가 12월 13일(금) 첫 방송된다. <스토브리그>는 팬들의 눈물마저 마른 꼴찌팀에 새로 부임한 단장이 남다른 시즌을 준비하는 뜨거운 겨울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다. 프로야구판을 소재로 다루지만 화려하거나 역동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그라운드 뒤편, 한숨과 눈물과 담으로 가득한 프런트들의 치열한 세계를 다룬다.

만년 하위권인 드림즈 야구단에 새로 부임하는 단장 백승수 역은 남궁민이 맡았다. 백승수는 씩씩, 하기, 핸드볼 등 늘 자신이 맡은 팀을 환골탈태시키며 우승을 거머쥐게 만드는 '우승 제조기'지만, 비인기 종목이라는 이유로 우승에도 불구하고 팀 해체를 경험한 후 드림즈에 들어온 인물이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유연함이나 융통성은 없지만 합리적인 사람이고, 까칠하지만 일은 잘하는 사람으로 통한다.

박은빈은 드림즈의 운영팀장 이세영 역을 맡았다. 세영에게 국내 최연소이자 유일한 여성 운영팀장이라는 타이틀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만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드림즈 때문에 패배의식에 젖어가던 차에 신임 단장 백승수를 만나 드림즈 재건에 힘을 보탠다.

조병규는 운영팀 직원 한재희 역으로 나선다. 한재희는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나 간절함이 없던 인물이다. 만년 하위권인 드림즈가 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은 선배 이세영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됐다. 적은 월급에 이렇게 많은 일을 시키는 곳이 있다는 것에 놀라면서도 계속 이세영 옆에 있고 싶어서 프런트 일에 열정과 에너지를 쏟는다.

오정세는 구단주의 조카이며 모기업 재송그룹 상무인 권경민 역을 맡았다. 구단의 운영보다는 다른 사업에 관심이 많은 큰아버지(전국환분)를 대신해서 실질적인 구단주 노릇을 하고 있는 인물이다. 경민은 신임 단장 백승수와 대치하면서 드림즈의 운명을 좌우하는 악당 역으로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손종학은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 드림즈 사장 고강선 역을 맡았다. 무사히 정년을 맞고 싶은 그에게 팀이 흥하는 건 좋지 않은 조짐이어서 고민에 빠진다.

그밖에도 스카우트 팀장 고세혁 역은 이준혁, 마케팅 팀장 임미선 역은 김수진, 전력분석가이자 백승수의 동생인 백영수 역은 윤선우, 백승수의 전 부인 유정인 역은 김정화, 이세영의 엄마 역은 윤복인이 맡는 등 수많은 연기파 배우들이 프런트, 선수, 코칭 스태프, 야구 관계자 등으로 출연해 초특급 스포츠 프런트 드라마를 완성한다.

드라마 관계자는 "공을 던지고 치는 주인공들 뒤에서 그림자로 존재하는 프런트가 우리 대부분의 삶이다."

주인공이 되지 못한 수많은 우리의 이야기를 야구를 통해 풀어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스토브리그>는 화별로 팀이 가진 문제를 한 가지씩 해결해가며 강팀의 면모를 갖춰가는 시추에이션 형식으로 방송된다.

2019.12.13.
FRI 10PM

이것은 야구 이야기가 아니다

지역 특산물 살리기 프로젝트 백종원 사단이 만드는 또 한 번의 기적



추석 특집으로 방송돼 SNS와 실시간 검색어를 뜨겁게 달군 식문화 개선 프로젝트 <맛남의 광장>이 정규 편성되어 12월 5일(목)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 <맛남의 광장>은 지역 특산물을 이용하여 기존에 맛볼 수 없었던 신메뉴를 개발·판매하는 프로그램이다. <3대천왕>-<푸드트럭>-<골목식당>에서 백종원과 호흡을 맞춰 온 이관원 PD와 제작진이 국산의 맛과 힘을 찾아 또 한번 의기투합했다.

백종원 사단은 지난달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옥계 휴게소에서 성황리에 첫 촬영을 마치고, 덕유산 휴게소, 경북 영천 휴게소까지 촬영을 완료했다. 세 차례의 촬영에서 집밥의 대가이자 장사의 신으로 불리는 백종원을 필두로, 자타 공인 백종원의 애제자 양세형, 주방 위생 책임자 김희철, 의욕 넘치는 열정 막내 김동준까지 네 남자가 모여 <농벤져스>를 결성하며 특별한 합을 선보였다.

첫 촬영지인 강릉 옥계 휴게소에서는 강원도 대표 로컬푸드 감자와 주문진항에서 공수한 홍게와 양미리를 활용한 신메뉴를 선보였다. 상품성이 떨어지는 못난이 감자를 활용하여 의미와 맛을 동시에 잡은 '맛남 감자 치즈볼'과, 육수용 홍게를 통째로 넣은 '맛남 홍게라면', 양미리 조업 풍어에 비해 수요가 부족하다는 어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맛남 양미리 조림 백반'과 '맛남 양미리 튀김'까지.

백종원과 김희철은 '맛남 홍게라면'과 '맛남 감자 치즈볼', 양세형과 김동준은 '맛남 양미리 조림 백반'과 '맛남 양미리 튀김'을 맡아 영업시간 종료까지 약 300인분을 판매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백종원의 수제자 양세형은 틈틈이 손님들의 반응을 살피며 같은 팀인 김동준을 이끄는 등 선배다운 면모를 톡톡히 보였고, 김동준 역시 첫 장사임에도 침착하게 맡은 바를 해내며 양세형과 찰떡 호흡을 보여줬다. 특히 홍게 손질 및 뒤처리를 잘 해낼까 걱정스럽던 김희철은 우려와 달리 장사 시작과 동시에 반전 모습을 보여줘 백종원을 놀라게 했다. 촬영 현장에서 보여준 이들의 브로맨스도 시청 포인트라고.

한편 <맛남의 광장>은 기존의 푸드 예능 프로그램과 달리, 알고도 지나쳤던 우리 농수산물이 가진 맛과 힘을 알려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지역 경제 발전은 물론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송 다음 날부터 국민 누구나 방송에 소개된 특산물을 손쉽게 만나볼 수 있도록 대형마트와 협력하여 판매할 예정이다. 추석 특집 방송 당시 영동의 특산물을 활용한 레시피를 공개하며 화제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잡았던 만큼, 또 한 번의 선한 영향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국산의 맛과 힘 재발견 프로젝트 <맛남의 광장>은 12월 5일부터 매주 목요일 밤 10시에 확인할 수 있다.



연예인 식당 수익금 일천만 원 기부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에 일천만 원을 기부했다. 최영인 예능본부장과 <골목식당> 제작진은 11월 26일(화) SBS 목동 사옥에서 굿네이버스 측과 만나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통해 활약했던 연예인 식당(배태랑수제버거+치열한 보라식당+사와대밥)의 수익금을 모은 것으로 지난해 5월에도 연예인 식당 수익금 일천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지난해 1월 첫 방송 이후 '인천 눈꽃마을' 편까지 골목 붐업 조성을 위해 연예인 식당을 운영했고, 많은 시청자들이 해당 골목을 방문하면서 의미 있는 매출을 기록했다.



이태현 굿네이버스 팀장 최영인 예능본부장 정우진 PD 유윤재 예능1CP

2019 희망TV SBS 대한건축사협회 공로상 수상

11월 28일(목) SBS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희망TV SBS>가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로부터 국내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통을 이끌어내는 데 크게 기여한 공로로 공로상을 수상했다.

<희망TV SBS>는 그동안 대한건축사협회로부터 건물 설계 재능 기부를 받아서 아프리카 희망학교 건립과 국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희망TV SBS>는 지금까지 전국 7개소의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지었고, 2019년에는 경남 함안, 충북 옥천, 경북 영양 등 3곳에서 공립형 아동센터를 짓고 있다. 이들 지역아동센터는 2020년에 완공될 예정인데, 이들 세 곳의 센터가 완공되면 SBS는 모두 10개의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놓여준 아동들에게 선물하게 된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성영준 SBS 사회공헌 담당

사상 최악의 생존 조건 <정글의 법칙 in 추크 & 폰페이> 45기 병만족, 태평양에서 조난당하다

망망대해 위 '조난'이란 강력한 한 방은 물론, 정글 최초 부녀 출연으로 가족애까지 탑재한 45기 <정글의 법칙 in 추크 & 폰페이>(연출: 김준수, 김문현)의 리얼 생존 드라마가 12월 14일(토) 밤 9시에 펼쳐진다.

<정글의 법칙> 최초 부녀 동반 출격

이번 병만족의 하드코어 생존지는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는 미크로네시아 추크와 폰페이. 먼저 전반전 추크는 둘레 225km, 직경 60km, 300여 개의 섬으로 이뤄진 세계 최대의 환초섬으로, 에메랄드빛 드넓은 바

다와 그림 같은 코코넛 섬들로 이루어진 지상낙원 그 자체다. 또 이곳은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당시 난파된 수백 척의 선박과 비행기가 그대로 가라앉아, 전 세계 마경 3위를 차지한 바다의 무덤이기도 하다.

추크에는 <정법> 9년 역사상 최초로 부녀가 출연한다. 바로 전소미와 그의 아빠 매튜 다우마. 이들은 상어도 때려잡겠다고 가기 전부터 남다른 '핏줄케미'를 선보였다. 또한 2020년 스무 살이 되는 <정법> 최연소 전소미와 한현민은 티격태격 절친 사이로, 이들의 '찰떡케미'도 기대할 만하다. 대한민국 대표 낚시꾼 23년차 '어신 이태공' 이태공의 출사표 또한 남다르다. 이번 목표는 정글 9년 동안 수없이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대형 참치' 낚시. 그동안 정글 출연만을 기다렸다는 유재환이 3개월 만에 무려 35kg를 감량 후 드디어 합류했다.

"니가 가라 폰페이~" 배우 유오성 출연

후반 병만족의 생존지 폰페이 또한 신비한 섬이다. 크기는 제주도 1/4 정도로 아주 작은 섬이지만 아직도 여러 명의 왕이 존재하는 '천년왕국'. 이곳에 대한민국 명품 카리스마 27년차 배우 유오성이 출연

한다. 리얼 예능은 처음이라며 "짐꾼이나 해야겠다", "잘때 방귀 끼는 습관이 제일 걱정"이라며 너스레를 떨던 유오성은 초보 낚시꾼임에도 불구하고 정글 최초로 청새치를 낚는 쾌거를 이뤄냈다. 게다가 족장 병만과 우진은 호흡 척척 맞춰가며 영화 '친구'의 달인 패러디까지 선보이며 개그감도 성장했다는 후문. 연예계 내로라하는 베테랑 낚시꾼 다이내믹 듀오 최자와 KCM도 출격했다. 색시함과 청순함을 모두 갖춘 베리굿 조현은 첫 바다 수영인데도 수심 5m를 찍고 '색시 인어'로 등극했다. 이외 정글 두 번째 출연인 배우 김다솜과 모델 스타 셰프 오스틴강까지 합심해 풍성한 정글 생존을 보여 줄 예정이다.



창사특집 **희망TV** 2019 SBS 17억 6백여만 원 모금하며 성황리에 마무리

SBS 대표 사회 공헌 프로그램 <창사특집 2019 희망TV SBS>가 지난 22일(금), 23일(토) 양일간 15시간 1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세계 모든 아이들이 아이다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힘쓴 <2019 희망TV SBS>는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다.

최연소 셀럽 추사랑부터 가수 에릭남까지

<희망TV> 최연소 셀럽 '추블리' 추사랑과 엄마 야노시호는 케냐로 떠났다. 낯선 아프리카에서 특급 친화력으로 적응한 사랑이의 케냐 학교 생활기와 함께, 야노시호는 절망을 안고 사는 케냐의 아이들을 만나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했다. 가수 에릭남은 우간다를 방문해 고된 노동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만나 든든한 형이 되어주었고, 배우 심해진은 메마른 땅 케냐에서 물로 인해 목숨과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

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들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주었다.

한편, 올해 5월 우간다를 방문했던 배우 윤유선이 내레이션으로 <희망TV>를 다시 찾았다. 미코지방증이라는 희소 질환을 앓고 있는 6살 윤서는 7살 겨울이 가장 큰 고비다. 하루하루 행복을 찾아 살아가고 있는 윤서네 가족 이야기는 시청자들의 가슴을 움직였고, 시청자로부터 많은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받아 또 다른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

업그레이드된 '아이 안심 캠페인 송' 릴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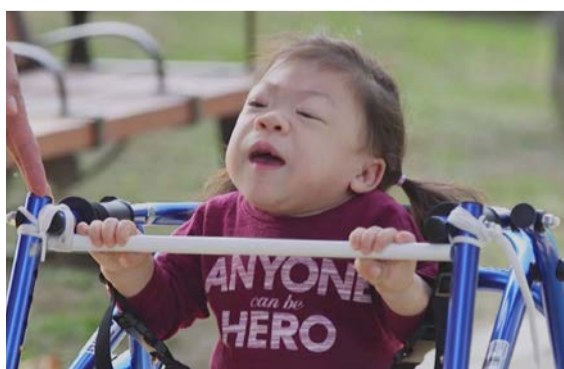
상반기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아이 안심 캠페인'이 업그레이드되어 돌아왔다. 김준현, 김병현, 양동근, 정세운 등 초특급 스타들이 선보인 '아이 안심 캠페인 커버송' 길 잃은 아이들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이 안심 캠페인'을 통

한 선한 영향력의 나비효과가 더 퍼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세상 모든 아이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청송 지역아동센터, 유소년 축구팀 '안산 드림FC'와 함께하는 아이들에 의한, 아이들을 위한 '드림월드 프로젝트'! 또한 잔지바르를 넘어 동아프리카에 교육과 미디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린 '잔지바르 미디어센터' 프로젝트까지! 더불어 <희망TV SBS>는 세상 모든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속적으로 응원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번 <창사특집 2019 희망TV SBS>는 2,370건 이상의 정기후원 약정이 체결되어 약 17억 6백여만 원을 모금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금액은 가난, 질병으로 고통받는 국내외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SBS 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 화제 속에 시즌 1 종영



<밥은 먹고 다니냐?>가 12월 2일(월) 방송을 끝으로 시즌 1을 종영했다.

<밥은 먹고 다니냐?>는 9월 30일 첫방송을 시작한 이래 3주 만에 동 시간대 온라인 화제성지수(TCI)에서 <동상이몽>에 이어 타사의 모든 예능 프로그램을 제치고 2위를 기록하다. 9회에는 가구 시청률 1%를 넘어섰다. 이는 케이블에서는 주목할 만한 수치로, SBS플러스가 근래 오리지널 콘텐츠로 주목을 끌지 못해 SBS 재방 채널 이미지만 갖고 있던 상황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하다.

이런 결과는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부터 꾸준히 추구한 차별화 전략이 적중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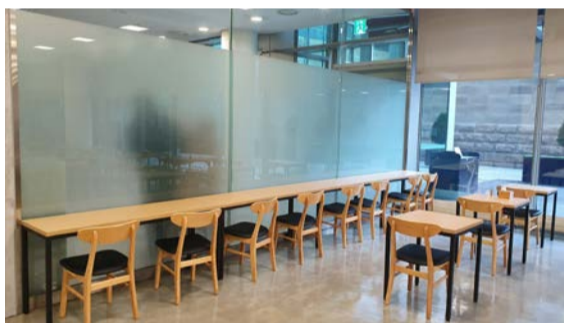
지난 6월 케이블계의 블루칩인 김수미를 우여곡절 끝에 섭외하고, 그녀의 음식 달인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한 속풀이 토크쇼를 기획하기까지 수많은 논의가 오고 갔다. 단순한 음식을 넘어 인생을 담고 삶을 담아내는 밥이 되려면 진짜로 식당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져, 결국 김수미가 직접 운영하는 국밥집을 차리게 됐다. 그 열린 공간으로 초대 손

님은 물론 일반 사연 신청자, 행인들까지 들어와 속이야기를 풀어놓는 멋진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밥은 먹고 다니냐?>는 시즌 2로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김수미를 제외한 출연진의 전원 교체가 이루어진다. 재미를 책임질 새로운 진행자 2명을 보강하고, 초대 손님의 폭을 정치인이나 유명인사까지 확대한다. 또한 시즌 1에 이어 일반인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시청자와의 공감을 이어갈 예정이다.

총무팀 신동훈 매니저 안식년

총무팀 신동훈 매니저가 내년 1월 안식년을 맞이한다. 신동훈 매니저는 1991년 6월 총무부로 입사하여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방송 시설의 근간인 전기설비 부문의 전문가로서, 조용하면서도 꼼꼼한 업무 처리로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다. 평소 공부하는 직장생활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었으며, SBS 안전관리자로서 맡은 바 역할을 다했다. 신 매니저는 “지난 29년 동안 전기설비 무사고 운영을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며, “비용 절감 및 쾌적한 근무 환경을 위해 LED 전등으로 교체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하는 자세로 끝까지 최선을 다한 신동훈 사우에게 걸맞은 인생 2막이 펼쳐지길 기대한다.



구내식당에 1~2인용 테이블 마련

총무팀은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임직원의 편의를 위해 12월 3일(화)부터 1~2인용 테이블을 운영하고 있다. 위치는 구내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한식 배식대의 왼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십여 석 규모이다. 총무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우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네, 저는 라디오기술팀 엔지니어입니다”

- 라디오기술팀 배민선

제가 방송을 들어갈 때마다 항상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감독님이세요? 콘솔 앞에 여자 감독님이 앉아있는 걸 처음 봐서 너무 신기해요!” 그렇습니다. 저는 SBS 창사 이래 최초의 라디오기술팀 여자 엔지니어입니다. 기계를 다루고, 시설 공사를 하고, 장비를 옮기고 설치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신기하게 생각하고, 누군가는 미심쩍게 생각하고, 누군가는 대견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대학교 후배들을 만나면 단골 질문 중의 하나가 “SBS는 방송 기술직에서 여자도 뽑나요?”입니다. 제 대답은 “내가 잘할게”입니다. 실제 SBS 기술국 6개의 팀(기술기획팀, 미디어IT팀 송출기술팀, 편집기술팀, 라디오기술팀, 미디어기술연구소)에서 여자 선배님은 세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술직에서 여자는 저까지 네 명, 아주 소수의 인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금까지의 관습이 변하고 있다고 믿고,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해야 더 많은 여성 후배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입사했다는 생각이 항상 뇌리를 짓누릅니다.

면접 때 어떤 면접관님은 저에게 밤샘하는 교대 근무를 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 대답했습니다. 제가 들어오으로써 남자 숙직실만 있던 저희 팀에 여자 숙직실이 새로 생겼습니다. 많은 선배님들께서 교대 근무하는 저에 대해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정말 괜찮습니다! 선배님들의 애정 어린 걱정 감사합니다.”

새로운 변화에 배신하지 않는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는데 직업에 여자, 남자가 어디 있을까요? 저를 팀원으로 받아주신 라디오기술팀 선배님들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